



‘오방색의 대가’ 故 오승운 전

21일~3월23일 서울 가나아트센터... 미공개 작품 35점 전시

“예술은 내 삶의 목적이다./~내 작품의 영원한 명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이며 평화이다.”

작가는 떠났지만 그의 작품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오방색의 화가’로 기억하고 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오승운(1939~2006년) 화백은 전통 문화 속에 담긴 상징적 사물과 표현에서 한국적 정신의 뿌리를 찾아 이를 오방정색(五方正色)과 십장생(十長生)을 통해 현대화하고자

후, 타계 직전까지의 ‘풍수’ 작품들에서는 더욱 화려하고 과감해진 오방색을 만날 수 있다. 오방색이 화면 속 이미지들과 함께 자연스레 화폭에 스며들며 궁극적으로 오승운 특유의 향토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특히 대례복을 입은 여인을 사이에 두고 나체의 보살을 형상화한 600호 대작 ‘바람과 물의 역사’에서는 삼라만상 속 자연으로의 회귀와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작가의 심오한 관찰과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

를 과감히 청산하고 전혀 다른 화풍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붉은 색채를 주로 쓰는 화가 마티스와 종종 비교되기도 했다.

오 화백이 90년대 후반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풍수(風水) 시리즈’는 어쩌면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적 선언이었다. 그는 풍수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산천과 민족 전통의 뿌리를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으로 그려냈다. 풍수 시리즈는 오 화백의 회화 언어가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또 가장 한국적인 색인 오방정색은 곧 작가의 색이었다.

미술평론가 윤범모씨는 “이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색채의 향연, 그야말로 색깔들의 잔치마당이다. 다채로운 원색, 일반 화가들조차 다루기를 꺼리는 오방색, 그 색동웃의 화려한 색깔, 한마디로 놀라울 정도의 이색풍경이다. 이 같은 색채의 마술사는 바로 오승운의 독보적 작업이다”고 평가했다.

오 화백의 딸이자 서양화가인 오수경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예술혼이 깃든 소중한 작품들”이라며 “서울 전시 이후 전국 순회 전시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오승운 화백은 프랑스 파리와 독일 본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전남대 미술대학 초대 교수를 역임했다. 문의 02-720-10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黃·靑·白·赤·黑... 그의 색에 다시 물들다



노력했던 작가다.

한국화단의 거목이자 우리나라 인상주의 회화의 대가인 오지호 화백의 셋째 아들인 오 화백은 스무 살 무렵 전국 학생미술실기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며 한국화단의 중심에 섰다.

원색적이면서도 불안정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서려있는 오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21일부터 3월23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8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이후 처음 열리는 개인전으로 미공개작 35점을 포함, 50여 점을 선보인다. 초기작인 정물화, 누드, 민속화, 풍경화를 비롯해 작가의 50년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미공개작은 그동안 가족들이 소장하던 것으로 고인이 타계 직전까지 전시회와 화집 발간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운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2000년대 이

작품은 오 화백의 ‘풍수 시리즈’의 결정체다. 작품 속에서 한국적 정서와 우주적 질서의 복원을 기원하고, 인간 서로간에 송고한 것들과 따뜻한 것들이 서로 소통하기를 염원한 작가의 정신과 작품이 일맥상통함을 보여준다.

한국화단이 오 화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50대에 그동안 화려하게 일구어 온 자신의 화해세계



◀‘산간과 마을’

▶‘풍수-春’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단원 모집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오는 3월 7일까지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남지역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으로 창작, 기악, 무용 3개 분야다.

선발된 단원은 방학기간 수련회와 학기 중 주말 교육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정기공연(연 1회), 전남도립국악단과 공연 협연, 국내·외 각종 행사에 출연해 전남도의 홍보사절단으로 활동한다.

응시원서는 전남도청(www.jeonnam.go.kr)과 전남문화재단(www.jncf.or.kr), 전남도립국악단(www.jpg.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립국악단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합격자는 3월 8일 실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33, 061-375-6928. /이보람기자 boram@

‘현장의 눈빛’ 사진기자협 광주·전남지회 ‘보도사진전’ 27일~3월5일 신세계갤러리

2014 광주·전남보도사진전 ‘현장의 눈빛’전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나명주)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한 해 광주 지역 일간지 사진기자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사진 100여점이 선보인다. 기자들은 다양한 사건 사고를 비롯해 해양 경찰 순찰함정에 동승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긴박한 모습 등을 앵글에 담았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주년을 기념해 무등산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작품들과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관련 취재 사진을 특별 전시한다.

2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제9회 박경완 기자상 시상식도 열린다. ‘박경완 기자상’은 지난 1993년 아시아 항공기 추락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T-50 전투기 추락사고 조종사 영결식 당시 유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취재 보도한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다.

나명주 회장은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진 기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월10일부터는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전시회가 이어진다. 문의 010-5113-3292. /김경인기자 kki@



김진수 작 ‘춤시위’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INCE 1989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1899-0240